

#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부실 도미노

### 가동률 추락·재고 물량 쌓여 극심한 자금난 속 24곳 폐업 대출금 상환·세금 연장 필요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한 달이 넘으면서 부품·협력업체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일부는 경영난 끝에 문을 닫는 등 협력업체 도미노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승용차 범퍼를 만드는 2차 협력업체 A사는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가동률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GM 군산공장이 어려워지면서 2년 전부터 거래를 줄이고 소비처를 다변화했지만, 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대표 B씨는 "1차 협력업체가 경영난에 물량을 줄이거나 자체 소화하면서 이곳에 납품하는 2·3차 협력사의 일감이 크게 줄었다"며 폐업 또는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B씨는 "폐쇄 발표 이후 원리금 상환 걱정을 잠을 못 이뤘는데, 이제야 상황이 1년 유예된다는 얘기를 들어 한숨을 돌렸다"며 상환 유예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기를 고대했다.

부품용 절강재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C



문동신 군산시장이 지난 23일 정세균(사진 오른쪽) 국회의장을 방문해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사 창고에는 5000t(시가 50억 상당)이 넘는 재고가 쌓인 채 녹슬고 있다. 지난해 3월 군산공장 신차 출시에 맞춰 납품을 준비했지만, 한 달 만에 생산 계획이 줄면서 재고가 늘었다.

C사의 올해 매출은 30%나 하락했다.

업체 대표 D씨는 "판로가 없어 인력을 줄이며 겨우 버티는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라며 허탈함을 짓고 "운영자금을 빌리는 것은 꿈도 못 꾀다. 원리금 대출이 연장되고, 담보가액 비율이 줄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품·협력업체들은 어떻게 위기에 대처할까 고민할 여유조차 없다"며 "사급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군산지역 GM 협력업체는 92곳이다. 이 가운데 24곳(직원 940명)이 이미 폐업했고 나머지 업체 대부분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대출금 상환 연장과 세금 연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브레이크 부품업체 E사 대표는 "GM

협력사라고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더 올린다고 할까 두려워 이를 숨긴다"며 "빨리 물량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 노사 타협안이 나오기 전에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신현태 전 군산공단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조금씩 이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에서는 큰 변화를 못 느낀다"며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이 살아가려면 3~5년 대출연장과 업종전환을 위한 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충격에 빠진 군산을 정부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이 정상궤도에 신속히 재진입시키려는 조치다.

신청서에서 전북도는 협력업체 긴급 일자리 창출 부문에 4010억원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 부문에 1조 2995억원, 관광·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문에 1조3061억원을 지원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연남뉴스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전남 최다

### 담양·영광 2개 산단 추가 지정 전국 11개 산단 중 전남 7곳

전남도는 담양일반산단과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나주혁신산단 등 그동안 지정된 5개 산단에, 이번 2개 산단이 추가돼 전남에서는 총 7곳이 지정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 집적 현상이 열악하고 생산 실적이 낙후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에 세제 및 자금, 판로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제도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직접 생산한 제품은 5년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밖에 자금융자 및 신용보증 우대, 산업기능요원 선정과 기술개발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은 지난 2015년에 나주혁신산단과 장흥바이오휘식품산단, 나주일반산단, 강진환경산단 등 4곳이, 2016년에 목포대양산단이 지정됐다. 이번엔 2개 산단이 추가 지정돼 모두 7개로, 전국 11개의 64%를 차지하게 됐다.

정병선 전남도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유치 촉진으로 산단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아름다운 전남 자연·문화유산 영상에 담아보세요

### 전남도 영상콘텐츠트 개최

전남도는 아름다운 전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영글에 담은 '2018 보물찾기 영상콘텐츠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상 공모는 주제와 제작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11월5일까지다. 전남도는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 12월7일 발표할 예정

이다.

최우수상(1명)은 상금 300만원, 우수상(2명)은 각 150만원, 장려상(3명) 각 100만원 등 총 11명의 입상자에게 전남도지사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인터넷방송 누리집(http://jntv.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 작품은 전남도 인터넷방송과 전남도 대표 SNS, 유튜브, 도청 영상홍보 시스템에서 연중 내보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국옷칠목공예대전 대상에 김종민 '국화무늬 호리병'

남원시가 주최한 제21회 전국옷칠목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인 대상에 김종민 작가의 '국화무늬 호리병'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우리 전통 문양인 국화문을 호리병에 세밀하게 얹어 정교하게 마감해,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금은 3000만원이다.

김상은 권미정 작가의 '연화문 함'과 양희정 작가의 '스투스'가 차지했다.

수상작은 오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전시되며 출향제 기간에 남원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이 대회는 옷칠과 목공예작품을 소재

로 하는 전국 유일의 경연대회다.

남원시가 조선 시대 왕실 진상품으로 바칠 만큼 전통과 품질을 인정받은 남원목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목공예의 전통을 잇기 위해

열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로 하는 전국 유일의 경연대회다.

## 정읍 지역 옛 모습 담은

### 필름·디지털 사진 수집

### 시립박물관 '정읍스토리' 전시회

정읍시립박물관은 지역의 옛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옛 사진에 투영된 정읍스토리' 특별 전시회 개최를 위한 사진을 수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집 대상은 시민의 삶과, 역사와 문화, 풍광이 소개된 2000년대 이전의 사진이다. 필름과 인쇄사진, 디지털사진 등을 포함한다.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시정을 비롯한 관공서, 문화예술·사회단체, 교육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도 수집할 계획이다.

수집된 자료는 선별작업을 거쳐 특별 전시회에 전시된다.

전시기간은 오는 12월 4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전에 열린다.

사진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30일까지다. 전시회에 사진을 출품하고 싶은 시민들은 정읍시립박물관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군산군도 천혜의 비경 만끽하는 '트래킹코스' 개발

### 말도~방축도 5개 섬 연결

군산시가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의 '말도~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에 착수했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옥도면 말도리 3개 유인 섬과 2개 무인 섬 등 5개(말도~보농도~명도~광대섬~방축도)섬에 4개의 인도교(총 길이=1.3km, 사업비 270억원)를 연결하고, 섬 내부의 길을 인도교<조감도>와 연결해 말도부터 방축도까지 명품 트래킹코스 14km를 개발할 예정이다. 트래킹코스 개발을 위해 인도교 사업과

별도로 30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2억5000만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내년 3월 용역을 마친 뒤 공사를 시작, 오는 2022년 인도교 설치와 동시에 트래킹코스 개발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트래킹코스의 중심이 되는 인도교 가운데 광대섬~방축도간 현수식출렁다리(83m)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는 트래킹코스 방축도구간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고남철 군산시 해양수산과 과장은 "옥도

면 말도리는 숨겨진 비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며 "인도교가 설치되면 도서자원과 인도교를 연계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14km를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 코스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완전 개통과 더불어 말도리 인도교와 명품 트래킹코스는 군산시 관광광역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를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 방수

##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최고급 전원주택(별장)

▶정남진 장흥, 환상적인 해변의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 리조트, 선착장이 어울린 최고급 주택

**토지 4,900㎡ / 건물 238㎡ → 매가 7억 2천**

캐나다산 수입원목(100%) 목조건물로 최고급 수입 원자재 시공, 조망권 최고! 광주에서 45분!

◎ 남해안에 더이상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최고의 전원주택 단지**

▶나주시 송촌동 동신대 인근 2차선 도로 접, 교통, 환경, 조망권 등 최상, 자연녹지

**전 16,200㎡ → 매가 22억**

H. 010-4226-7722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딱갈비/퐁듀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에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6404  
광장 : 광주광역시 광안구 학남산단9번로 45(창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